

논단

1

River & Culture



오민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RC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지문위원
(ufo1009@hanmail.net)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9 익산 고도보존경관 가이드라인과 하천경관가이드라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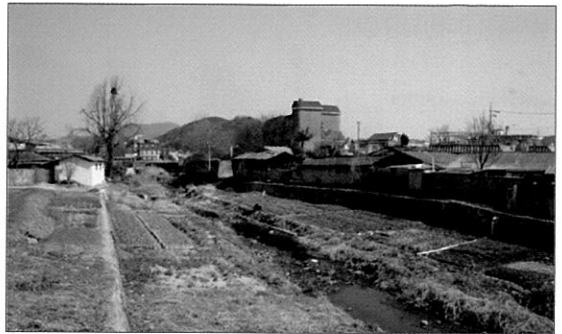
지난 호(2012년 여름호)에서 고도(古都)에서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그 부분 중 하나로 하천경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하천경관'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도지역에 대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어서, 하천경관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가령, '조망 眺望')에서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난 후, 경관부문별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전체와 세

부'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 체제가 마련된다.

익산 '고도보존 경관가이드라인'에서는 하천경관에 대한 원칙적인 수준과 함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천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 '경관'에 관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도지역의 중심부인 금마면 시가지지를 관통하는 '옥룡천' 구간을 '경관형성우선구역'으로 설정하여, 경관을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구역으로 하였다.



익산 금마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옥룡천 풍경
 '지방의 소하천변의 토지이용은 대개 위의 사진과 같이 불법경작지로 이용되거나, 가설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하천'으로서의 풍경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대개의 중소도시의 읍면소재지에 위치하는 하천변 풍경을 보면 크게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시설물, 옥외광고물이라는 요소에 의해 경관의 질이 결정된다. 익산 옥룡천의 경우도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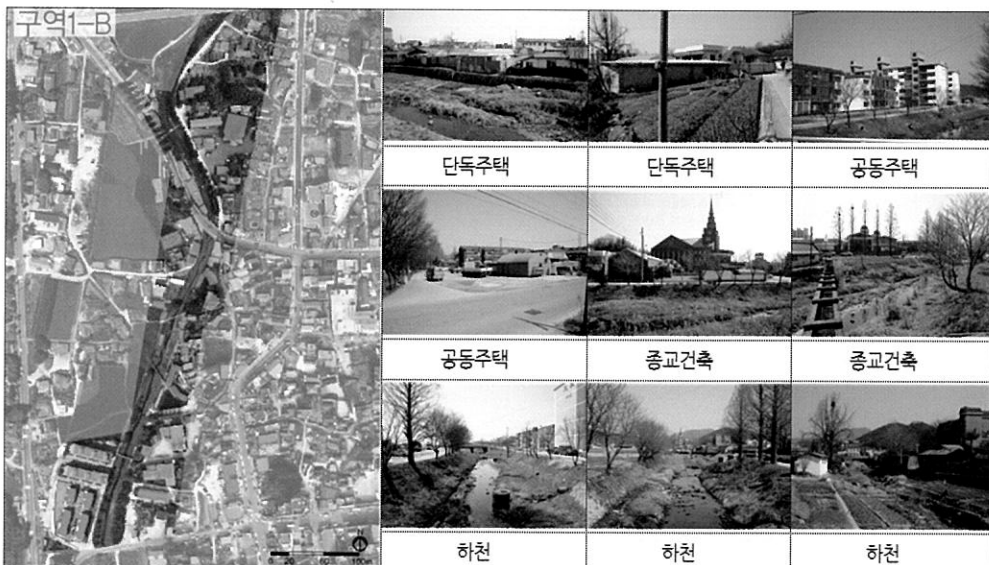
익산시 금마면 소재 옥룡천변 주요 경관요소와 그 구성		©2012, 랜드릭스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건축물, 상업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룡천변 공간, 식재	
시설물	교량, 옥외조형물(십자탑 등)	
옥외광고물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현수막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옥룡천 경관형성우선구역에서의 경관형성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되었다.

옥룡천 구간의 경관형성 기본방향

- 옥룡천 수질개선 및 물길 복원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 등이 머무르며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의 경관 형성
- 미륵산 등의 배경산림과 옥룡천이 이루는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연속적인 풍경이 되도록 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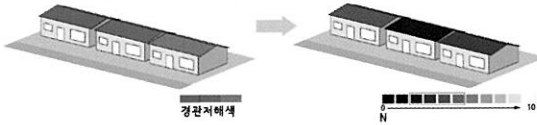
경관형성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옥룡천 경관형성우선구역의 경관요소들에 대한 경관형성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령, 주택의 경우는 담장, 색채, 배치, 형태 및 외관을, 상업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색채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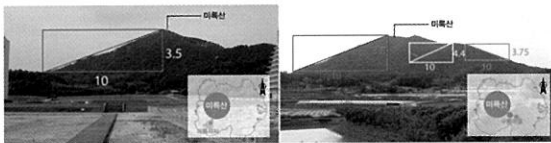
녹지축을 고려한 담장 설치



건축물 지붕 색채의 조화 유도



지붕경사각의 유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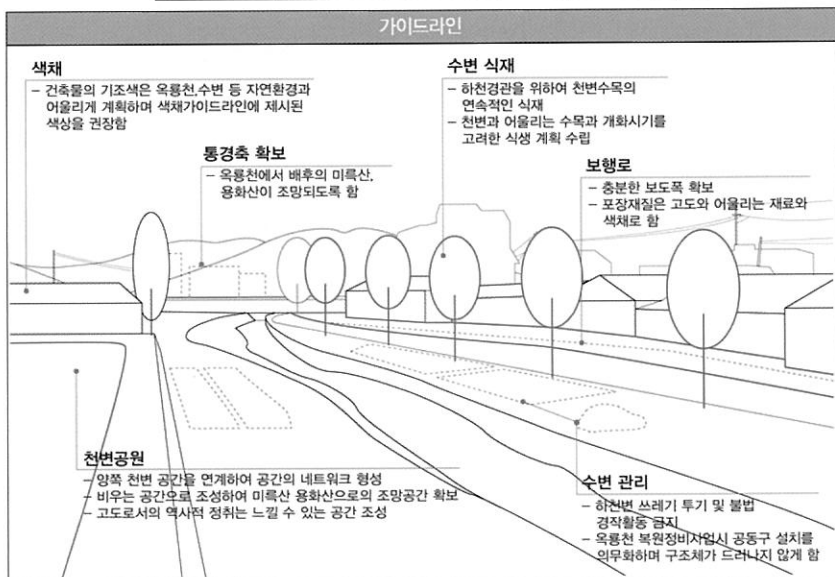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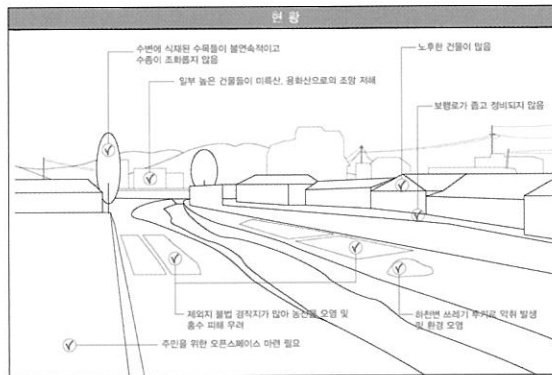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종류가 다른 것은 해당 경관요소 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하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소하천들이 그렇

듯이, 하천을 직강화하였거나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하거나 복개하는 등의 인공적인 조성을 지양하고, 지적원도 등에서 나타난 하천의 원형을 파악하여 자연형 하천 형태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천복원시는 지적원도를 기준으로 주변의 물길 및 산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원시에 발굴되는 석재들 중 문화재의 부속 재료 여부를 파악하여 원래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옥룡천 직강화 및 복개시에 주변 문화재의 석재들이 사용되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하천에 개별 매설되어 하천 풍경을 훼손하는 하수 도시설을 포함하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하천변 녹도(綠道 greenway)를 확보하여 하천변 접근성을 높이고 산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나타낸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천의 자연 및 생태환경과 주민

그렇다면,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서술한 옥룡천 경관형성우선구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천의 수질이다.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강화하거나 콘크리트 호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약 10여년 전 일본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자연형 하천' 만들기가 대두되었고, 지금은 '자연하천' 만들기로 제목자체가 바뀌었을 정도로 하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달라졌다.

따라서 하천경관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상태(수질)'이며, 이를 '보전'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하천오염원의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내 인프라시설이므로 결국 지역의 상하수도 및 전선 등을 통합하는 공동구의 설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한 것이다. 대도시인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소도읍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뿐더러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우선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수질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하천의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생태적 측면에서도 그 종다양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단순히 행정력, 예산, 전문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천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과 방문객인데, 하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갖는 것은 결국 해당 하천이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복원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로 인해 인프라 및 하드웨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적(地籍)상과 실제 땅의 용

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하천복원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 전부이다.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나 효과면에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이 해당 사업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소위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주도'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호에 답기로 한다. 🍎

